투데이 칼럼

위기의 장수군! 전 군민의 역량을 모아야 존재할 수 있다

김 덕 남
장수군 행정지원과장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 표어들은 1970-80년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어땠는지 가히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당시에는 인구증가를 절대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대국민 인식개혁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시기였다. 때문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연이어 들리는 집의 부모는 축하보다는 염려의 말을 들어야했다.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는 것인가?

불과 30년이 지난 2000년대 후반기부터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저명한 학자들이 예측했고, 정부의 정책은 출산장려의 방향으로 대전환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6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7%로 OECD 국가중 최하위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이 놀랄 일도 아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가까운 미래에 수많은 노인세대들을 부양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은 암담하고 침울하기만 할 것이다. 장수군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에 3만5천명이었던 인구수가 2017년에는 2만 3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사망률은 출생률보다 높아졌고, 생산가능 인구보다는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보고서에 장수군의 30년 후 소멸위험도는 28위로 기록되어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불과 30년 후 장수군이 없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장수군 공직자로서 가히 충격적이고 내용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아닌가싶다.

위기가 곧 기회다.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이 절실하다.

장수군 전 행정력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의 역량을 동원한 미래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장수군 인구 3만명 회복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생기발랄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다.

먼저 군정 여러 곳에 산재했던 인구정책들을 모아서 4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이다.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행사업은 확대하고, 다양한 곳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을 준비할 것이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과학적 영농기법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장수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과 영농기반시설을 보급하는 농업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결혼에서 임신, 출산,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이 대안은 인구정책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대안이자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로는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지원 등 마을 재생사업과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것이다. 더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장려금 지급 및 관내 기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정착 지원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장수군민이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가슴에 붙일 것인가? 아님 말로만 전해지는 전설의 땅으로 장수군으로 기억하게 할 것인가?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곧 기회라 하였다.

지금부터 은 군민이 마음을 모아 미래를 준비한다면 30년 후에는 살기 좋은 장수, 사람 넘치는 장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독자제언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새학기

3월을 맞아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맞이한다.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될지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입학식을 맞이하여 등교한다.

그러나 부푼 꿈과 희망이 얼마가지 않아 절망으로 바뀔 수 있다.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학교폭력이다.

긴 방학을 보내다 새학기의 시작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되는 아이들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이른바 신학기증후군을 겪는다. 아이들이 단지 학교에 가기 싫어서 하는 행동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친구들 만들기 위해 소위 과시하기 작전을 쓰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친구들간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왕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전년도 3월부터 4월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7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 전화가 하루 평균 248건씩 상담 및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일평균 신고 건수와 비교해 148% 급증한 수치다.

최근 학교폭력의 경향은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옛날 단순한 신체적 폭행이 주를 이룬것에 비해 최근에는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폭력, 성적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의 발생 우려가 높고, 학부모와 같이 등·하교 하는 경우가 많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중·고교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피해 등 우려 학생 위주 면담으로 사후관리에 집주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복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하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육기봉 진안경찰서 용담파출소 경위

독자제언

북극곰의 절규

여러분의 기억 속 북극곰은 어떤 모습인가?

빨간 콜라의 광고에 등장하는 하얗고 포실한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북극곰의 현실은 새하얀 눈밭을 뒹구는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있다.

2006년 국제 북극곰 보호단체는 매년 2월 27일은 '세계 북극곰의 날'로, 2008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북극곰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했다.

북극곰의 현실을 환기시키고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지정된 것이다.

최근 북극의 온난화가 지구 평균보다 2배나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극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 국민이 대답할 만큼 널리 퍼져있는 정보일 것이다.

재활용품 사용, 낸낭방비 절약, 대중교통·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종이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아주 간단한 방법일이 말이다.

북극곰들은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양 상태 악화로 번식률이 낮아지고, 헤엄 중 쉴 수 있는 빙붕을 찾지 못해 익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캐나다 환경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북극곰의 개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절망적인 소식으로는 2050년에는 단 1만 5천 마리만 남게 된다는 보고서도 발표되었다.

지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정 총회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고,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세계 북극곰의 날'을 위하여 하루만큼은 사라져가는 북극곰들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

황지은 완주경찰서 경무과순경

사 설

전북도의 주목받는 희망 만들기 행보

전북도의 희망 만들기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들리느니 귀 시끄러운 소리뿐, 밝은 소식이 드물었던 까닭이다. 최근에 하림이 푸드콤플렉스 기공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고, 새만금개발공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조만간 변화가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도민들은 그동안 받은 상처가 컸다. 군산의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GM의 폐쇄 수순밟기가 그랬거니와 남원의 서남대 폐교 확정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군산 GM의 희망 퇴직자가 60%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그게 완전 폐쇄보다 낫기는 해도 일자리 대량 상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낙심 천만한 이때, 도지사가 희망 만들기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니 주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도가 도민을 위해서 희망 관심사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은 잘 하는 일이다. 바라는 바와 달리 안 좋은 소식이 가중된다고 해도 희망 만들기 작업은 꾸준히 전개돼야만 한다.

도지사의 주도로 시작된 희망 만들기 행보는 도민들의 바람 그대로 그 목표와 실속이 확실해야 한다. 언론 홍보를 위한 한 때의 움직임 정도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도지사는 부안군 유유마을을 찾아서 부안군수와 농민 관계자들과 함께 농식품 6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유유마을은 국가의 중요한 농업유산 지역이기에 발전 방안을 논의할 이유가 뚜렷하다. 양잠농업은 6차 산업화의 미래 모델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분야라는 정평도 있다.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분명하다.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사업도 힘찬 추진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전주시의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익산시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만큼이나 부안군 유유마을의 양잠농업도 새로운 활력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야 견실한 희망 만들기가 될 터이다. 전북도는 희망 대화 행보만큼이나 많은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래를 견인할 사업들을 두루 확실히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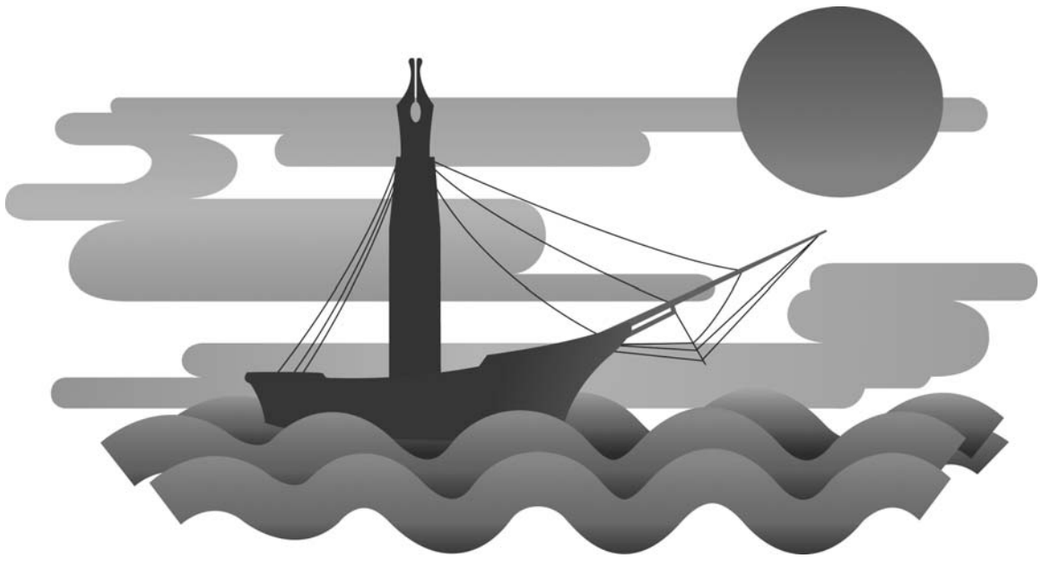
인구 감소 해결책 찾아야 한다

전북도는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그 중에 우선적으로 꼽히는 게 인구 감소이다. 지난해 많은 인구가 줄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재작년에도 전국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다. 전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 고민해야 한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수무책은 보기에 안 좋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행정자치 연보'를 보면 우리 지역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역전될 기미가 없는 것이다. 전북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까닭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인구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 이마를 짚어야했다. 인구 유출의 역사가 오래인데 혁신도시 발전 쪽에만 미련을 둔 채로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허튼 것이 아니다. 이제 전북은 고령자들의 고장이 돼버렸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고장을 지키고 있으니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분발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창한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다. 전북도는 먹고 사는 살림살이 문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

180만 명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불안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도 못 견딜 일인데 현재 제너널모터스는 희망 퇴직자를 대량으로 구하고 있다. 기대하는 바와 반대로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작금의 현실에 도민들은 정신이 사납다. 정말이지 이 난감한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 앞으로도 계속 될 터이다. 전북도는 뭔가를 속히 보여주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